

마태 4

- 1. 왕께서 시험을 받으심.....1
- 2. 왕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심.....3
- 3. 왕께서 어부들을 부르심.....4
- 4. 왕께서 큰 무리를 고치심.....6

1. 왕께서 시험을 받음

(마 4:1)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
 (마 4:2)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주리시니라.
 (마 4:3)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, 네가 만일 [하나님]의 [아들]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, 하거늘
 (마 4:4)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, 기록된바,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, [하나님]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, 하였느니라, 하시더라.
 (마 4:5)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
 (마 4:6) 그분께 이르되, 네가 만일 [하나님]의 [아들]이거든 뛰어내리라. 기록된바,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, 하였느니라, 하매
 (마 4:7)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또 기록된바, 너는 [주] 네 [하나님]을 시험하지 말라, 하였느니라, 하시더라.

(막 1:12)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.
 (막 1:13)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.

(눅 4:1) 예수님께서 [성령님]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
 (눅 4:2) 사십 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.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나매 그 뒤에 그분께서 주리시니라.
 (눅 4:3)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, 네가 만일 [하나님]의 [아들]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, 하니
 (눅 4:4)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기록된바,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, [하나님]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, 하였느니라, 하시더라.
 (눅 4:5)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 주며
 (눅 4:6)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,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.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.
 (눅 4:7)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, 하

(마 4:8)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 주며

(마 4:9) 그분께 이르되, 네가 만일 옳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, 하매

(마 4:10)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사탄아,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. 기록된바, 너는 [주] 네 [하나님]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, 하였느니라, 하시더라.

(마 4:11)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, 보라,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.

매

(눅 4:8)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사탄아,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. 기록된바, 너는 [주] 네 [하나님]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, 하였느니라, 하시더라.

(눅 4:9)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, 네가 만일 [하나님]의 [아들]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.

(눅 4:10) 기록된바,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

(눅 4:11)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, 하였느니라, 하매

(눅 4:12)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, 너는 [주] 네 [하나님]을 시험하지 말라, 하였느니라, 하시더라.

(눅 4:13)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.

2. 왕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함

(마 4:12) ¶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

(마 4:13)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

(마 4:14)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. 이르시되,

(마 4:15)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,

(마 4:16)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, 하였느니라.

(마 4:17) ¶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, 회개하라.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, 하시더라.

(막 1:14)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[하나님]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(막 1:15) 이르시되, 때가 찼고 [하나님]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, 하시더라.

(눅 4:14) ¶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매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.

(눅 4:15)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.

3. 왕께서 어부들을 부르심

(마 4:18) ¶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.

(마 4:19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나를 따르라.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, 하시니

(마 4:20)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.

(마 4:21)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

(마 4:22)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 두고 그분을 따르니라.

(막 1:16)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.

(막 1:17)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, 하시니

(막 1:18)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.

(막 1:19)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더라.

(막 1:20)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.

(눅 5:1)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[하나님]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

(눅 5:2)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.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.

(눅 5:3)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. 그분께서 그가 물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

(눅 5:4)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,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, 하시매

(눅 5:5)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, 선생님이며,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, 하고

(눅 5:6)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.

(눅 5:7)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.

(눅 5:8)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, 오 [주]여, 내게서 떠나소서.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, 하니

(눅 5:9)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

랐기 때문이더라.

(눅 5:10)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
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
더라.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
되, 두려워하지 말라. 이제부터는
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, 하시니

(눅 5:11)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
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
을 따르니라.

4. 왕께서 큰 무리를 고침

(마 4:23) ¶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

(마 4:24)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.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, 마귀 들린 자, 미친 증세가 있는 자, 마비 병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

(마 4:25)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.

(막 1:35)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.

(막 1:36)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

(막 1:37)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,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, 하거늘

(막 1:38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.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, 하시고

(막 1:39)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마귀들을 내쫓으시더라.

(눅 4:40) ¶ 이제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안수하시사 그들을 고치시니라.

(눅 6:17) ¶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도 함께하더라.

(눅 6:18)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

(눅 6:19)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쓰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낫게 하였기 때문이더라.